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안전결의대회 개최

최성고 기자 / sh400yh@yahoo.co.kr 입력 : 2025년 04월 11일(금) 16:29



© 성주신문

지난 9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'2025년 청렴이행각서 교환식 및 4KS 실천하기 안전결의대회'가 열렸다.

4KS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제정한 건설현장 안전기준으로 △ 꼭 지키자 안전(Keep Safety) △ 꼭 지키자 기준(Keep Safety Standard) △ 꼭 살피자 안전(Keep Safety Search) △ 꼭 지키자 스스로(Keep Safety Yourself)을 의미한다.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공사 및 시공사 직원 합동 안전결의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안전과 무사고 달성에 힘쓰고자 본 행사를 마련했다.

이날 결의대회는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등 15명이 참여했으며, 청렴이행각서 교환식,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4KS 실천하기 결의문 낭독 및 안전교육 순으로 이어졌다.

이돈문 성주지사장은 "공사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전념하도록 본 행사와 같이 다방면에서 노력 중"이라며 "금일 진행된 안전결의대회를 통해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 지난 9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'2025년 청렴이행각서 교환식 및 4KS 실천하기 안전결의대회'가 열렸다.